

## 사슴의 외래성 질병

사슴의 수입자유화로 인해 사슴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질병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위생연구소가 밝힌 사슴의 외래성 질병중 사슴이 잘 감염되는 병독성 질병에 관해 간략하게 게재. 이들 질병에 대한 국내 양육농가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註)

### 1. 부 르 텡

면양에 감염돼 발열, 구강과 비강 분비물에 출혈과 기포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EHD(Epizootic hemorrhagic disease)와 상호 관련이 깊은 절족동물의 매개질병이다. 소와 사슴에 준임상적으로 감염되며 전세계적으로 발생한다. 발생시기는 대체적으로 늦은 여름과 가을초기에 나타나며 킬리코디스(culicoides)라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데 수입사슴에는 이병에 대한 혈청반응이 반드시 음성으로 나타나야 한다.

### 2 구 제 역

구제역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슴의 모든 종류는 이 질병에 감수성이 있고 일부는 심각한 임상질병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실험결과 구제역을 사슴과 기타 가축과의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야생 사슴은 구제역 발생에 대해 전파 및 지속발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 3. 광 견 병

전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유럽·아시아·아프리카·북·남미의 야생동물에 상재해 있다. 사슴에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슴은 광견병의 종말 숙주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광견병 비발생지역으로 인정된 곳으로부터 사슴이 수입되거나 6개월간의 검역이 필요하다.

### 4. 우 역

우역은 소에서 발열·괴사성구내염·위장염·임파선의 괴사와 같은 높은 폐사율이 특징이며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이 병은 모든 사슴종류에게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며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 우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터어키 이외의 유럽지역에서는 지난 30년대 이래 발생치 않았다. 사슴은 우역발생지역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전에 검역과 철저한 검사가 실시돼야 한다.

### 5. 피부유두종과 섬유종

피부유두종과 섬유종은 북미·영국과 유럽사슴의 모든 종류에서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사슴의 섬유정은 지름이 1cm에 이르는 단단하고 둥근 결절인 피부의 악성 종양이다.

종양의 표면은 갈색 혹은 흑색을 띠고 있으며 평편하거나 주름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섬유종은 눈·입·목주위와 전지의 중간부위에서 발견된다. 한편 섬유종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축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밖에도 도약병, 수포성내구염·바이러스 및 해면성뇌증 등이 있는데 수입 사슴에서는 이들 질병에 대해서 혈청검사시 음성으로 나타나야 한다.